

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회

# 해외건설 시장환경 및 경쟁력 진단과 진출 전략

---

2022. 12. 9

손 태 홍, Ph.D.

## 해외건설 시장환경 및 경쟁력 진단과 진출전략

1. Inconsistent Outlooks
2. Evaluation of Our Positions
3. Strategies

## 해외건설 시장환경 및 경쟁력 진단과 진출전략

1. Inconsistent Outl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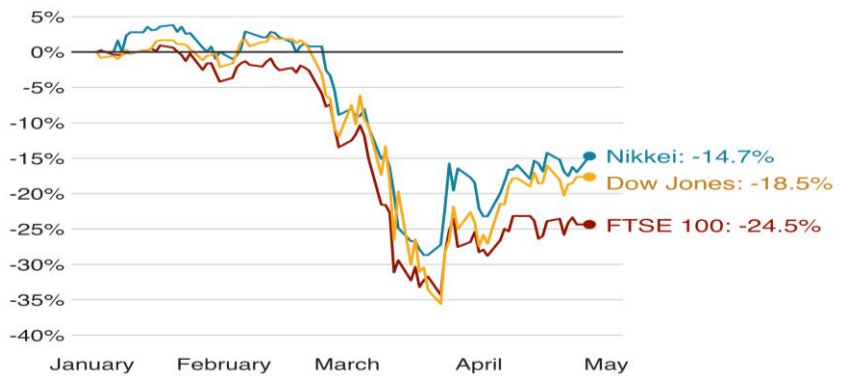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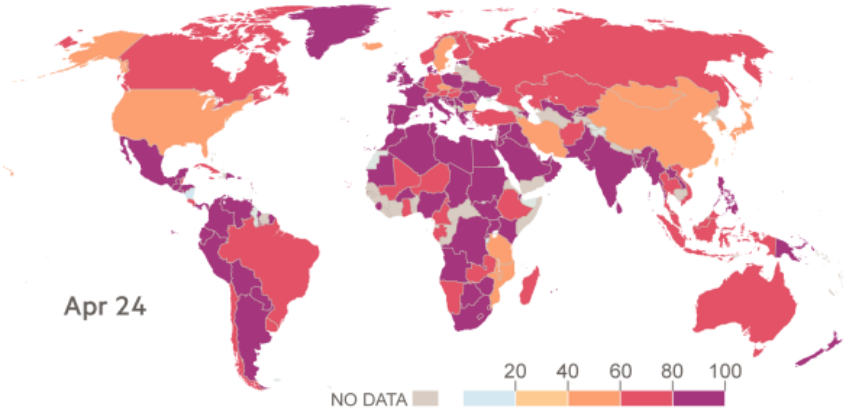
2. Evaluation of Our Positions

3. Strategies

팬데믹 선언 직후 세계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공급과 수요의 동시 위축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 심화
  - 봉쇄 등의 조치로 석유수요는 일일 최대 2,600만 배럴 감소(WTI는 2020년 4월 20일, -37.63달러 기록)

〈세계 경제 충격〉



발표기관	OECD	무디스(G20개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IMF	S&P	피치
전망치	2.4%	-0.5%	-2.8%	-3.0%	-2.4%	-3.9%
기존 전망치	2.9%	2.6%	1.1%	3.3%	0.4%	-1.9%
발표일	3.2	3.25	4.8	4.14	4.16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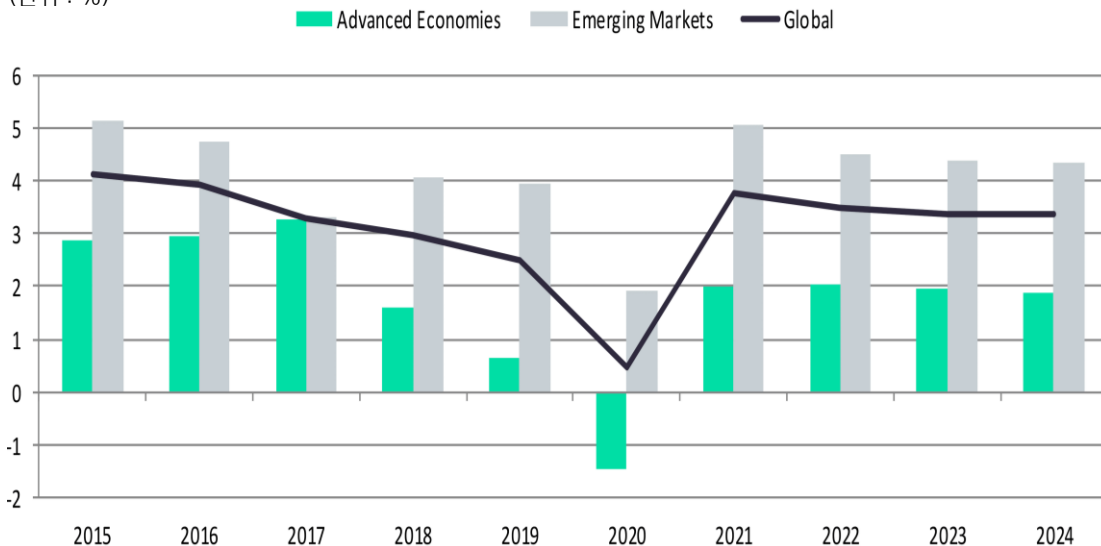
자료 : Financial IMF, 국제금융센터(2022년 세계경제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은 예측보다 大

- GlobalData(2019년 4분기), 2020년 글로벌 건설시장은 2019년 2.6%보다 높은 3.1% 성장 전망
  - 블랙스완과도 같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건설시장의 강력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
  - GlobalData(2020년 1분기), 글로벌 건설시장의 성장률 0.5%로 수정 ⇨ 2020년 2분기까지 코로나19 발생이 억제된다는 전제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GlobalData

##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건설시장 침체 가능성 高

● GlobalData(2020년 1분기), 지역별 건설시장 성장률 전망 ⇒ 선진국 -1.5%, 신흥국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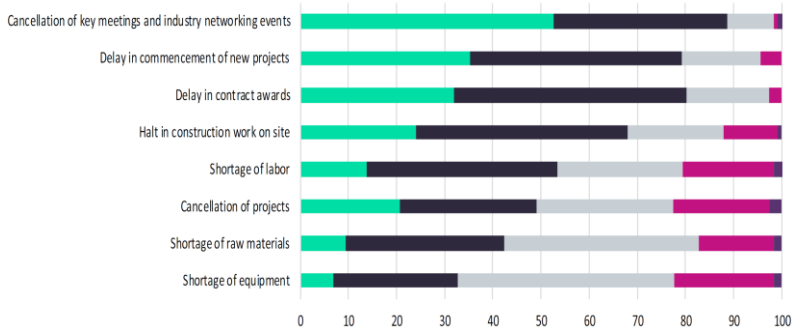
– 유럽 건설시장 -1.1%, 북미 건설시장 -0.9%, 중남미 -0.3%, 동북아시아 1.4%, MENA 1.4%

– 시장의 성장률 조정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2020년 3월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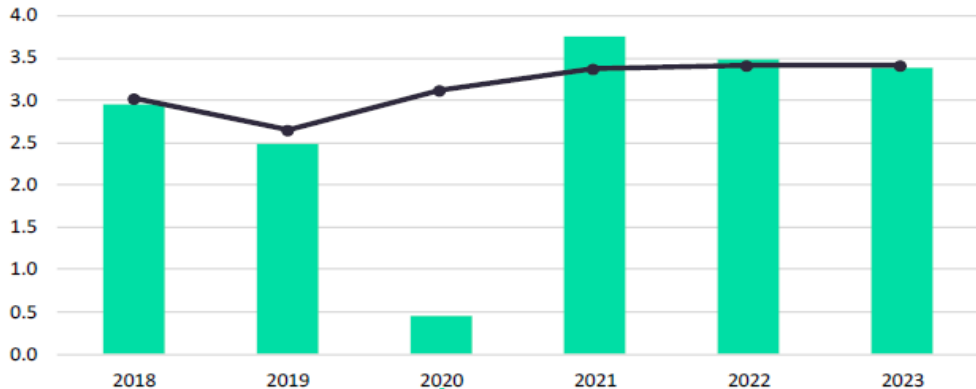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단위 : %)

Latest Update Previous Update (Q4 2019)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



## 〈2020년 지역별 건설시장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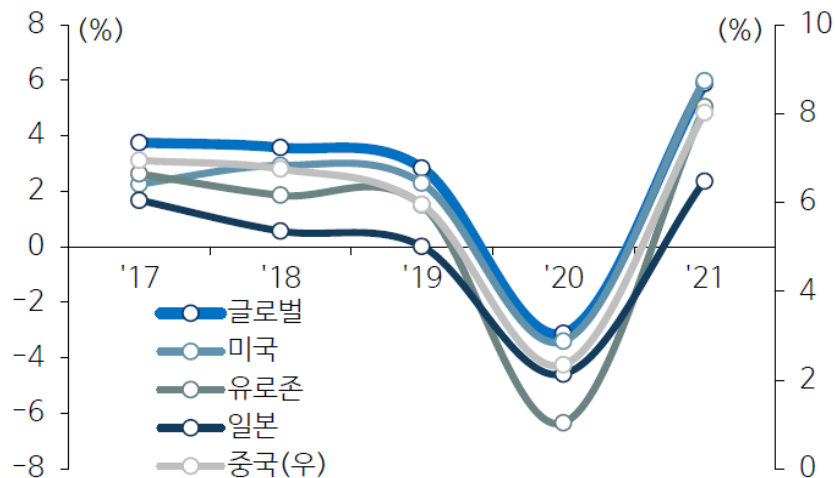
자료 : GlobalData

## 정책 부양과 백신 접종 확대가 경제성장 견인

###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공급과 수요의 동시 위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 정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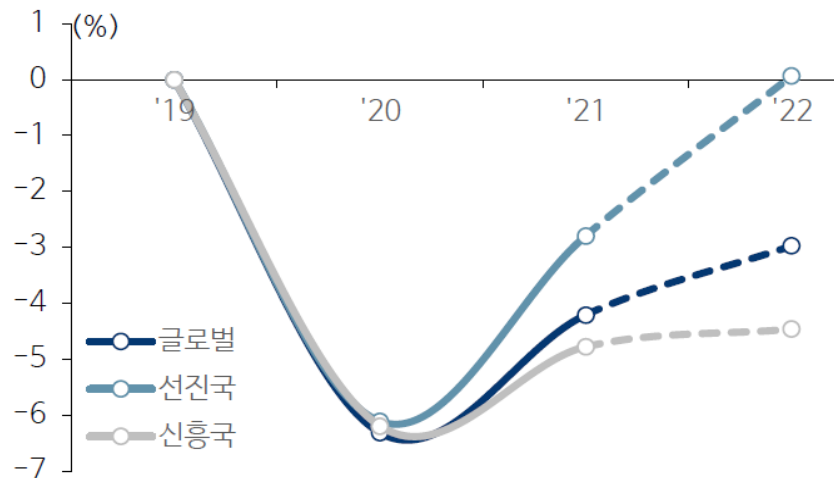
-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과 더불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이동제한 및 봉쇄 해제로 실물경기 회복 → 2021년 세계 경제는 약 6% 내외의 성장률 기록
- 선진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성장 경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부진

〈세계 경제 회복 추이〉



자료 : IMF, 국제금융센터(2022년 세계경제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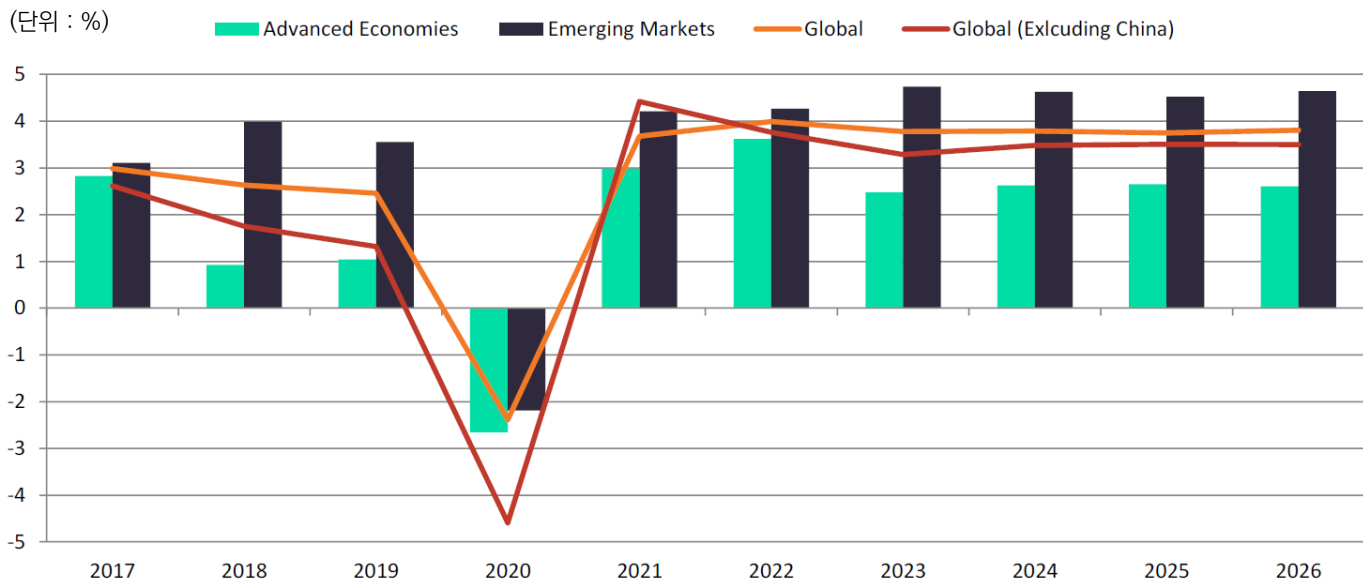
〈코로나 19 이전 성장 추세 대비 차이〉



## 낙관하기 어려운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 GlobalData(2022년 1분기), 2022년 글로벌 건설시장, 2021년 대비 0.3%p 증가한 4.0% 성장 전망
  - 선진국 건설시장 3.6%, 신흥국 건설시장 4.3% 성장 전망
  - 2020년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0.5%보다 낮은 -2.5% 수준 기록
  -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2022년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高

###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률 실적과 전망 추이〉



자료 : Global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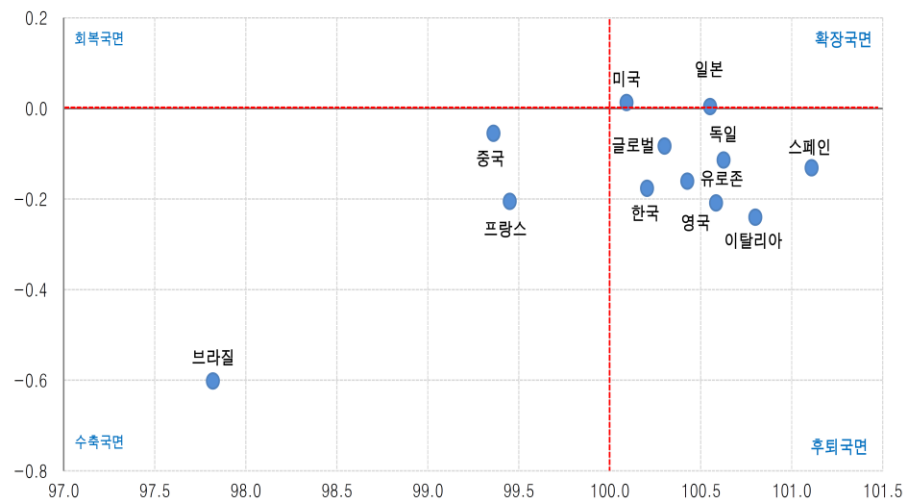


## OECD 경기 선행지수로는 다수 국가가 후퇴국면

### ●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통제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 경기침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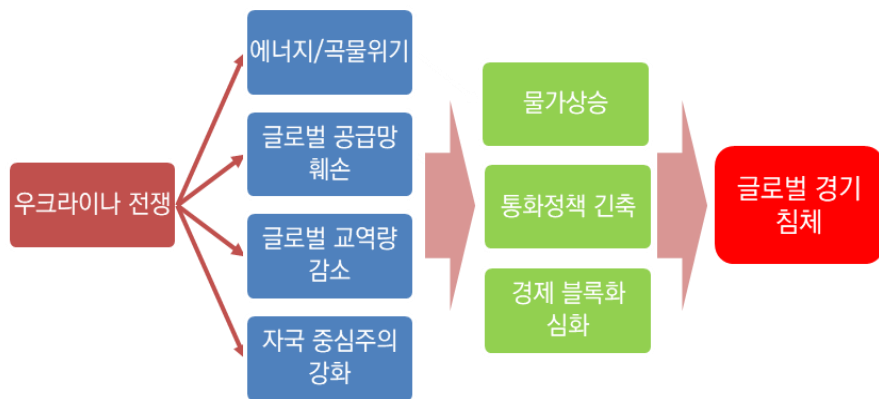
- 금리 인상 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훼손이라는 결과 유인
-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 신흥국 금융 불안 야기
- 미국의 금리인상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코로나)은 여전히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본 세계 경기 국면〉



자료 : OECD, 대신증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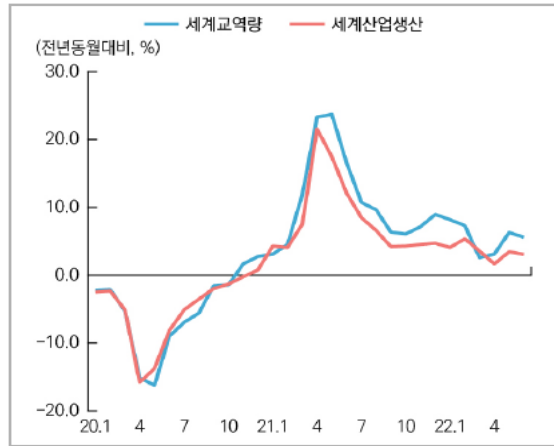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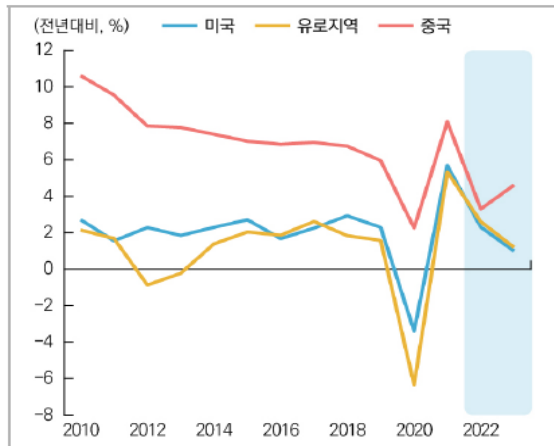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감소 등 경제 둔화 추세 뚜렷

### ●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무역 교역량 증가세 대폭 둔화

-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세였던 세계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간 경제패권 분쟁 등의 지정학 불확실성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 급격히 둔화 추세
-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율도 2021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크게 약화하고 있는 상황

#### 〈경제성장률 추이(좌), 주요국 성장률 추이(중),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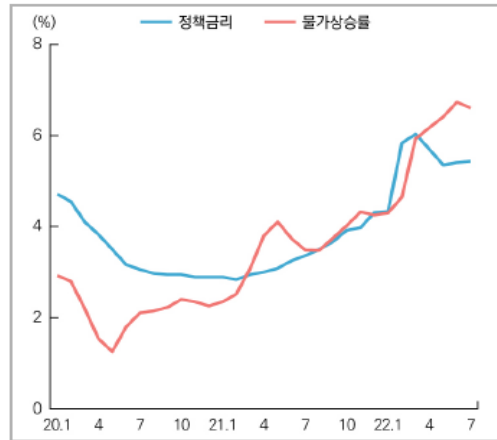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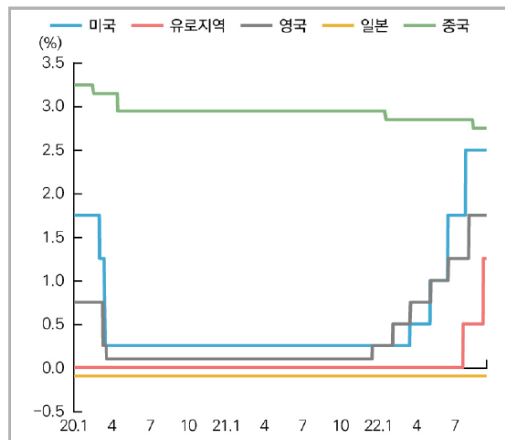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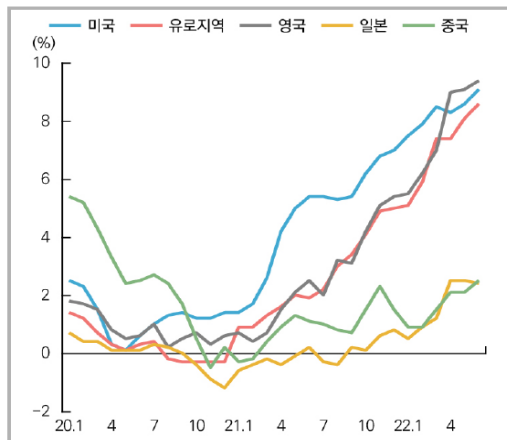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 ●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고용확대와 임금 상승,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 주요국은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 축소**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차단**을 유인해 물가안정을 도모
- 신흥국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에 추세 →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높여**

####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좌), 주요국 정책금리(중), 신흥국 정책금리와 물가상승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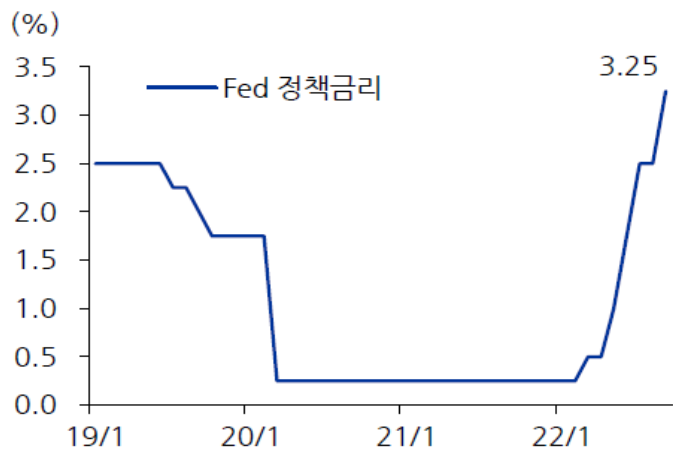
주: 신흥국의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은 9개 신흥국의 단순평균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지속에 대한 의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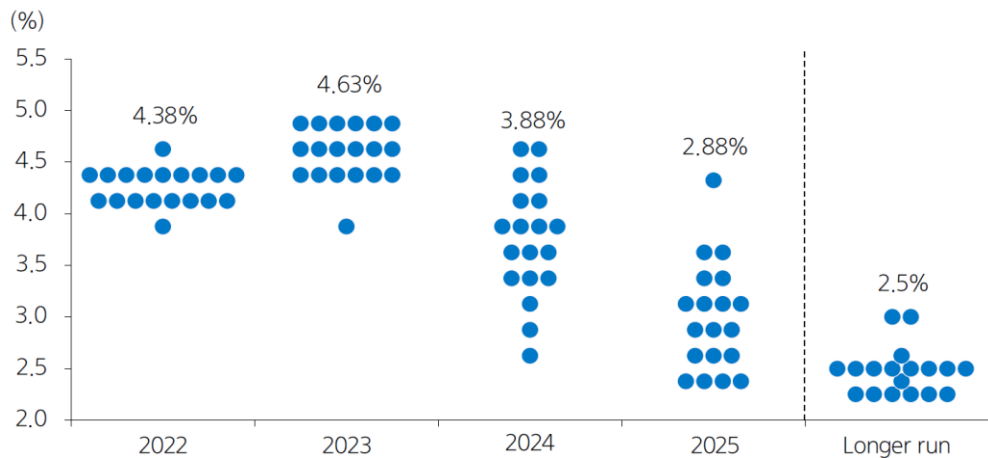
### ● 미 연준은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 bp인상하며 4번 연속 Giant Step 단행

- 점도표 기준 2022년 말 기준금리 기대값은 4.4%, 내년말은 당초 3.8%에서 4.6%로 상승(12월 50bp)
-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최소 5.0% 수준 전망(2024년 이전 금리인하 X), 장기간에 걸친 긴축 유지 가능성 高
- FOMC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1.7%에서 0.2%로 대폭하향 조정하며 경기침체 가능성 인정
  - 2023년 1.2%, 2024년 1.7%로 하향 조정

〈미 연준 금리 인상 추이〉



〈FOMC 점도표〉



주: 점도표 값은 삼성증권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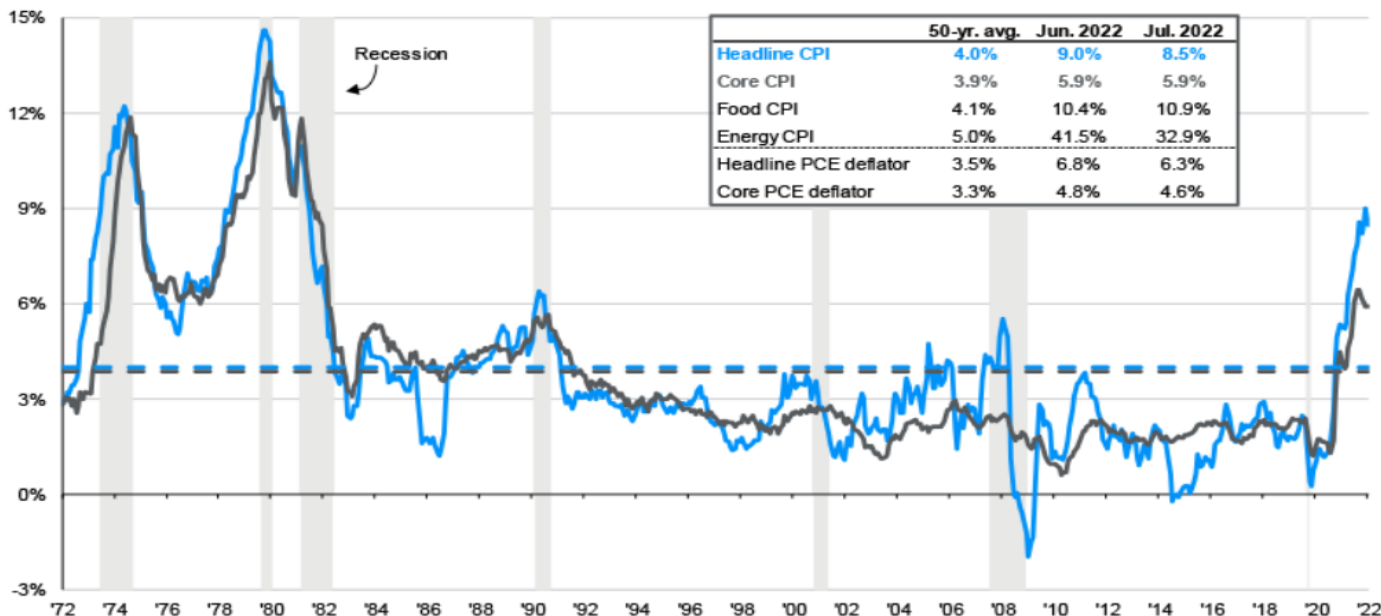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인플레→금리인상→경기침체

### ● 인플레이션 고점 전후로 경기침체 발생

- 1970년 CPI가 12%에 이르는 과정과 1980년(14%)에 경기침체 발생
  - 2000년대 이후 경기침체는 높지 않은 물가수준에서도 발생(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이후의 경기침체)
- 1980년 이후의 최대 수준인 현재의 물가수준, 1970년대와 비교해보면 9%가 넘어서면 경기침체 동반

### 〈1972~2022년 미국 CPI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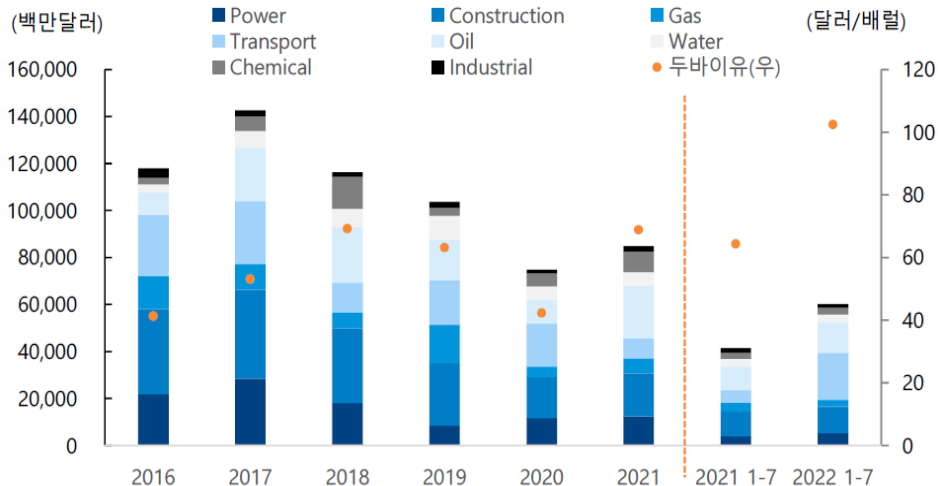
자료 : JP모건

## MENA 건설 시장의 Coming Back?

● 2022년 7월 누적 기준, 인프라 200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67%), 건축 111억 달러(+5%), Oil&Gas 161억 달러(+17%) 증가하며 발주시장 성장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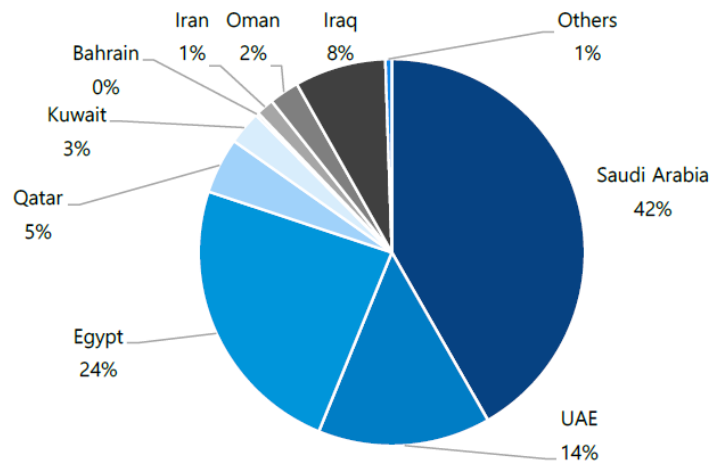
- 발전 53억 달러(+39%), 석유화학 29억 달러(+9%) 등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 기록
-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251억 달러(+36.2%)로 전체 발주 규모의 42% 차지, 이집트가 144억 달러(+610%)로 24% 차지

〈MENA 건설시장 발주 추이〉



자료 : 하이투자증권, MEED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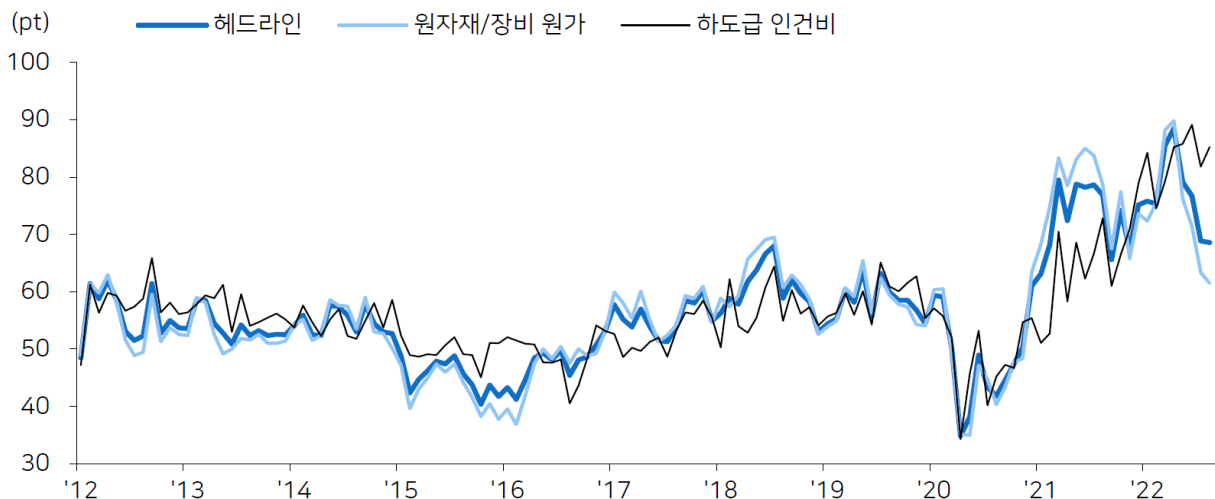
〈MENA 건설시장 국가별 발주 비중〉



##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영향

-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은 중동국가의 재무 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 수주 기대감 상승**
  - 반면에, **인플레이션(+공급망 차질)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발주 지연의 원인으로도 작용

〈IHS Markit의 ECCI 추이(~2022년 8월)〉



주: ECCI(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st Index)는 EPC 기업을 대상으로 전월 대비 공사 원가 등록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지수화 것으로, 50 포인트 이상은 상승, 50 포인트 미만은 하락을 의미

헤드라인 인덱스는 원자재/장비 원가(70%), 하도급 인건비(30%)를 조합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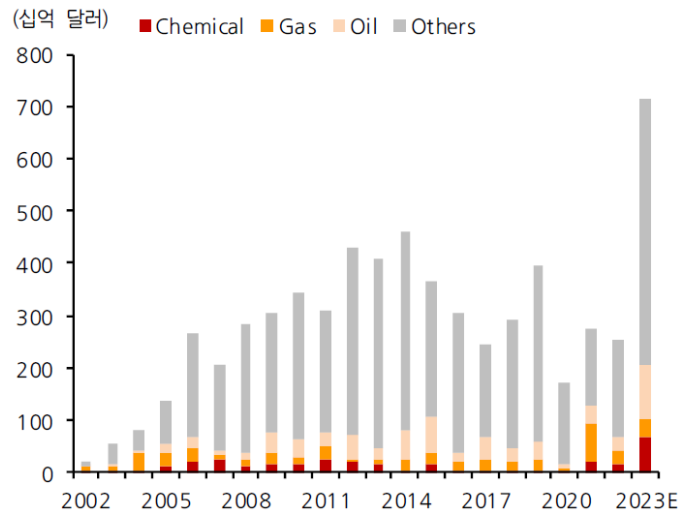
자료 : 메리츠 증권

##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 중동시장 발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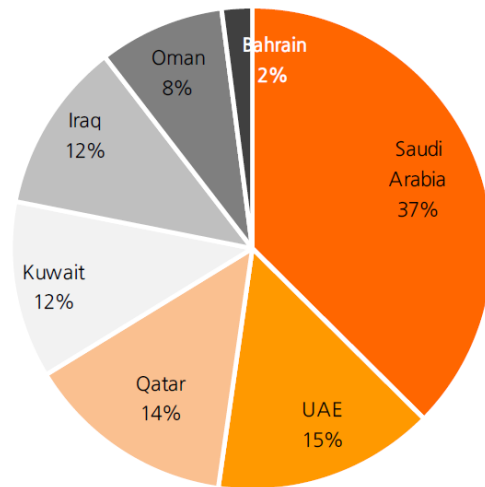
### ● 유가급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 축소 및 입찰 중단 등의 2020년을 지나 2021년 초반부터 회복세로 전환된 유가를 바탕으로 주요 발주처의 투자여지 증가

- MEED Projects에 따르면, MENA 주요 7개국의 2022~2023년 발주 예산금액은 약 9,700억 달러 수준
- 공종별로는 **건축과 교통부문이 각각 26%** 수준,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7%**, UAE와 카타르가 각각 15%와 14% 차지

〈MENA 7개국 발주 예산 금액 추이〉



〈MENA 7개 국가별 '22~'23년 예산 금액 비중〉





## 네옴(NEOM)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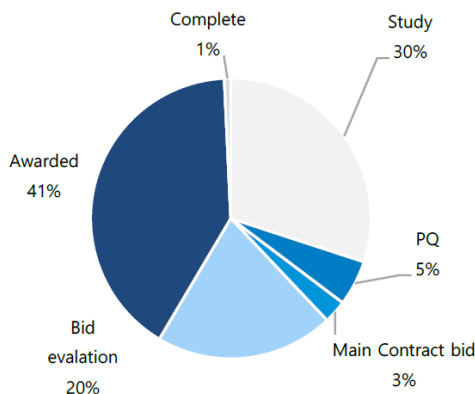
### ● Saudi Vision 2030의 핵심 사업인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2만 6,500km<sup>2</sup>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억 달러**

- 더 라인(The Line)은 34km<sup>2</sup> 면적의 도시로, 2030년 150만명, 2045년 900만명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끝과 끝을 20분 이동 가능,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이 주요 특성
- 옥사곤(Oxagon)은 350 TEU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 도시, 트로제나(Trojena)는 관광도시로 계획
- 사업은 초기단계로, **현재까지 발주 금액은 199억 달러, 계획 중인 사업은 480억 달러 규모**
- 5,000억 달러 중 건설비용을 4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00억 달러의 발주 가능 (현재까지 발주 금액 10% 수준)

### 〈계획(planned) 중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백만달러)	Study&Design	PQ	Main Contract bid	Bidevaluation	Awarded	Complete	Total
건축	2,915	-	260	2,420	11,533	140	17,268
인프라	6,925	275	200	1,130	7,768	135	16,433
산업용	1,480	-	-	30	-	-	1,534
전력	200	300~	-	4,151	-	-	4,651
화학	100	-	-	1,500	-	-	1,600
가스	50	0	0	0	-	-	50
수처리	2,750	1,950	825	650	272	80	6,527
합계	14,420	2,525	1,285	9,881	19,573	355	48,063

### 〈네옴 프로젝트 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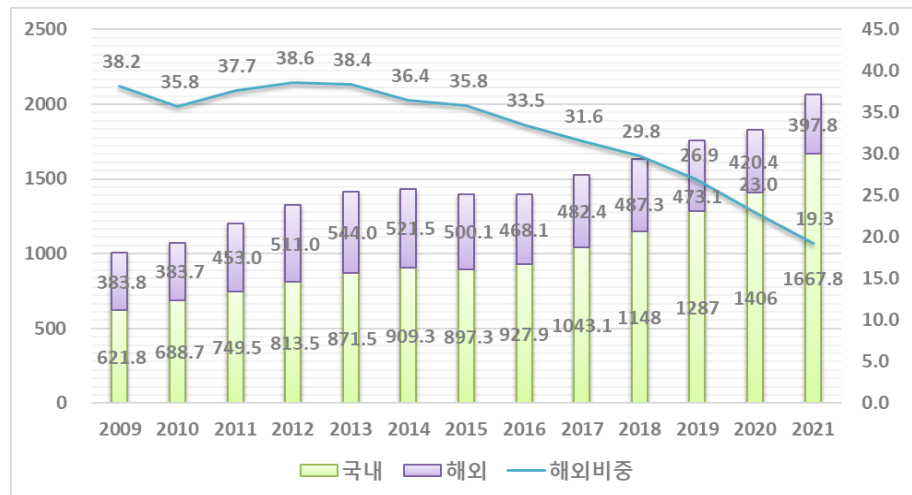


## 국내 매출 증가세 지속, 해외매출 감소 폭 확대

- 2021년 ENR 250대 기업의 국내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8.6% 증가한 1.67조 달러로 전체 매출의 80.7%
  - 반면에, 해외매출 규모는 3,978억 달러로 4천억 달러를 하회,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도 19.3%(2009년 대비 50% 수준)
  - 250대 기업의 해외매출 중간값은 4.38억 달러로 2020년 대비 5.89% 증가, 2020년과 2021년 해외매출을 신고한 236개 기업 중 62.3%가 해외매출 증가 → 해외건설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 근거? Re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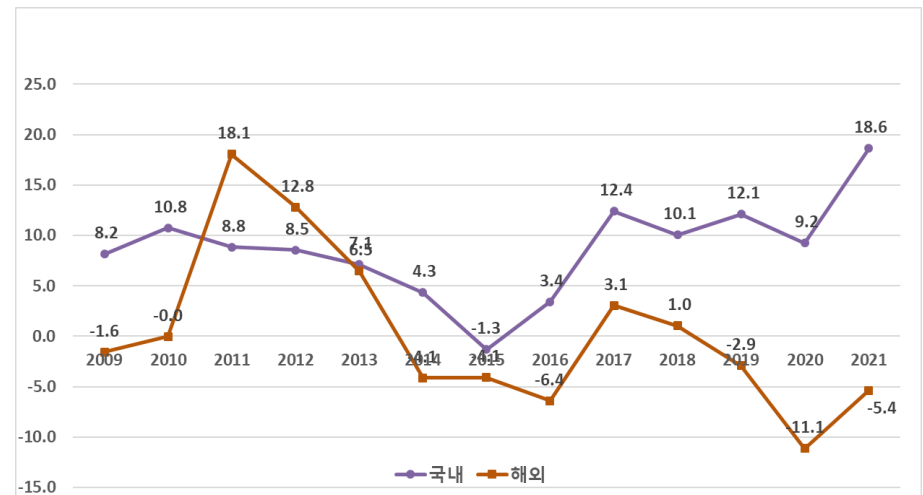
### 〈ENR 250대 기업 건설시장 매출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 〈ENR 250대 기업 건설시장 매출 성장률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주: ACS와 Hochtief의 매출 결합과 두 기업 간의 고유 매출 제약을 반영하여 해외매출 규모가 산출됨  
자료 : E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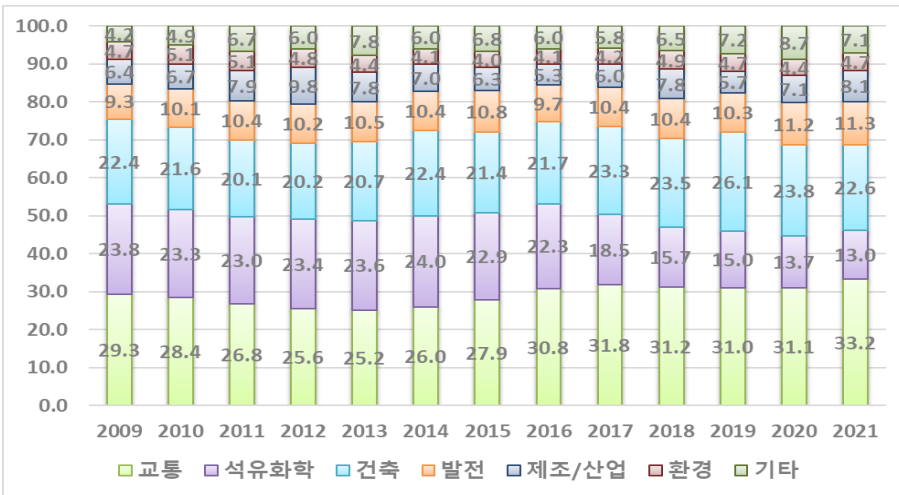
## 공종으로는 교통부문, 지역으로는 유럽 시장

### ● 공종별 비중으로는 교통, 건축, 석유화학 순이지만 **석유화학 비중은 2015년부터 감소세 지속**

- 지역별 2021년 해외매출 비중에서는 유럽, 아시아, 북미가 각각 28%, 25%, 18% 차지
- 반면에, **중동 지역**의 매출 비중은 **12%**로 역대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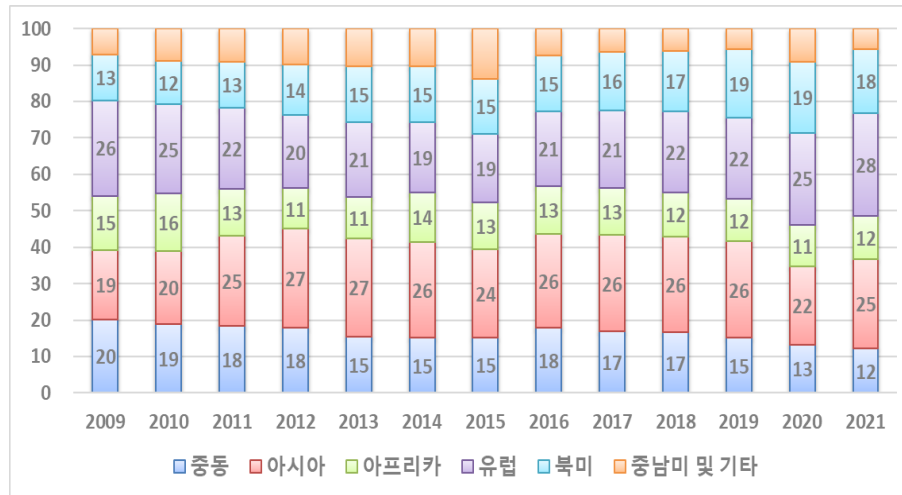
〈ENR 250대 기업 공종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

(단위 : %)



〈ENR 250대 기업 지역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

(단위 : %)



주: ACS와 Hochtief의 매출 결합과 두 기업 간의 고유 매출 제약을 반영하여 해외매출 규모가 산출됨  
자료 : E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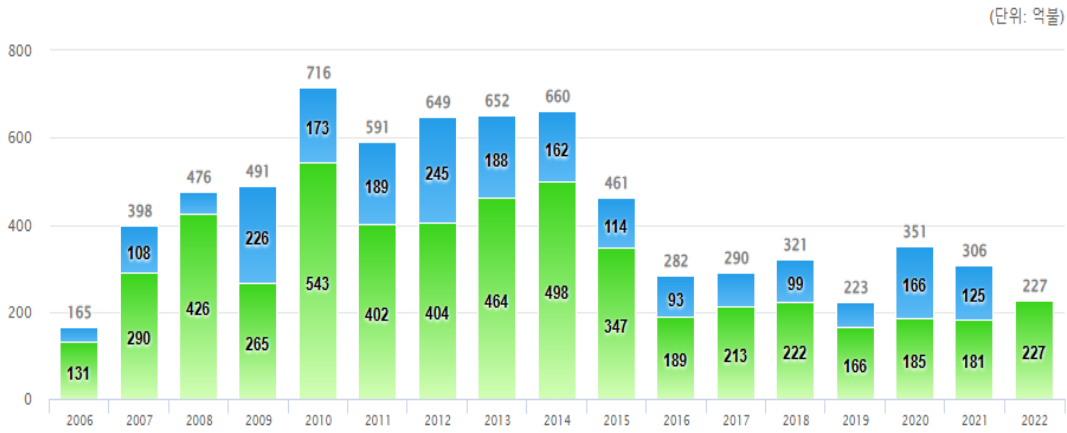
## 해외건설 시장환경 및 경쟁력 진단과 진출전략

1. Inconsistent Outlooks
2. Evaluation of Our Positions
3. Strategies

## 해외건설, 2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

-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 달성은 **가시권 진입**
  - 227억 달러 수주 중 **국내 그룹사 프로젝트 수주** 금액은 36.1억 달러로 **전체의 15.9% 차지**
    - 기존 수주 사업의 계약 금액 증액 규모는 13.4억 달러
  - 금액별 상위 10위 프로젝트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가 19.1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
    - 삼성 엔지니어링의 발틱 화학플랜트 프로젝트(11.4억 달러), 롯데건설 라인프로젝트(8.9억 달러)가 각각 2위와 3위

〈해외건설 수주 추이〉



〈수주 금액 상위 10위 프로젝트〉

국가	기업	사업명	금액(억달러)
미국	삼성물산	Taylor FAB1 신축공사	19.1
러시아	삼성 ENG	발틱 화학 플랜트	11.4
인니	롯데건설	라인프로젝트	8.9
사우디	두산에너지빌리티	투웨이그 주단조 공장 건설사업	8.5
인니	현대 ENG	롯데 인도네시아 뉴 에틸렌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8.1
인니	현대 ENG	발릭파판 정유플랜트 고도화사업	7.6(증액)
말련	삼성 ENG	헬 로즈마리&마조람 육상 가스 사업	6.8
사우디	두산에너지빌리티	슈아이바 3 IWP	6.4
카타르	삼성물산	카타르 에너지 태양과 발전소 건설사업	6.4
캐나다	삼성물산	Site C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5.8(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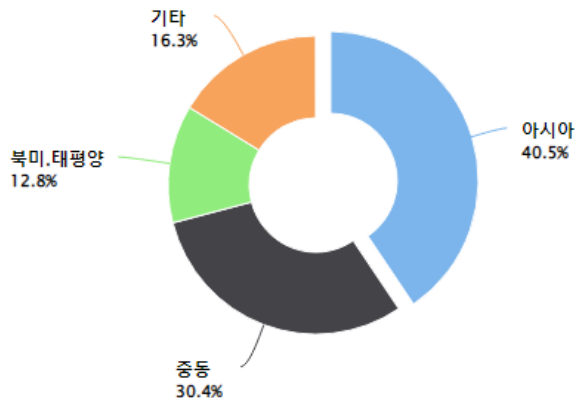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지역별로는 아시아,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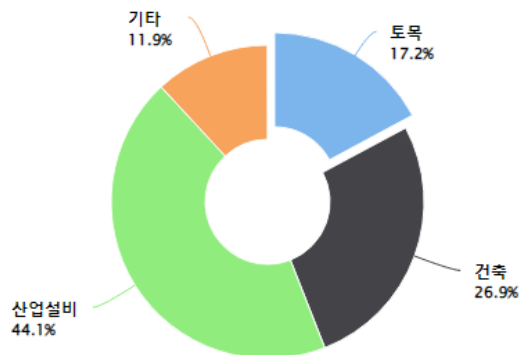
### ● 아시아가 92.3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40.5% 차지, 중동이 68.5억 달러로 30.4% 차지

- 북미·태평양 수주가 28.6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12.8%를 차지했는데,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19.1억 달러) 신축 사업 영향 大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플랜트)가 100.3억 달러로 44.1%, 건축이 61.1억 달러로 26.9% 차지
- 발주형태별로는 **도급(공개+지명+수의)사업이 전체 수주의 95.6%**를 차지해 편중 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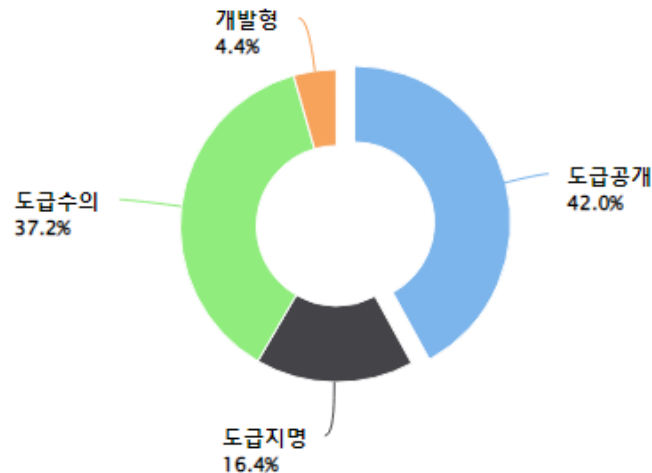
〈지역별 비중〉



〈공종별 비중〉



〈발주형태별 비중〉



우리 해외건설 기업은 세계 5~6위권 유지

- 해외건설 수주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ENR 250대 기업의 해외매출 순위에서는 5~6위권(2021년 227억 달러)
  - 순위 유지는 250대 기업 전체 해외매출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서 발생 ⇨ 2016년 4,681억 달러에서 2021년 3,978억 달러
  - 반면, 225대 설계기업의 순위에서는 11위(0.9%), 5.9억달러 수준

〈 2016~2021년 ENR 국가별 점유율 및 순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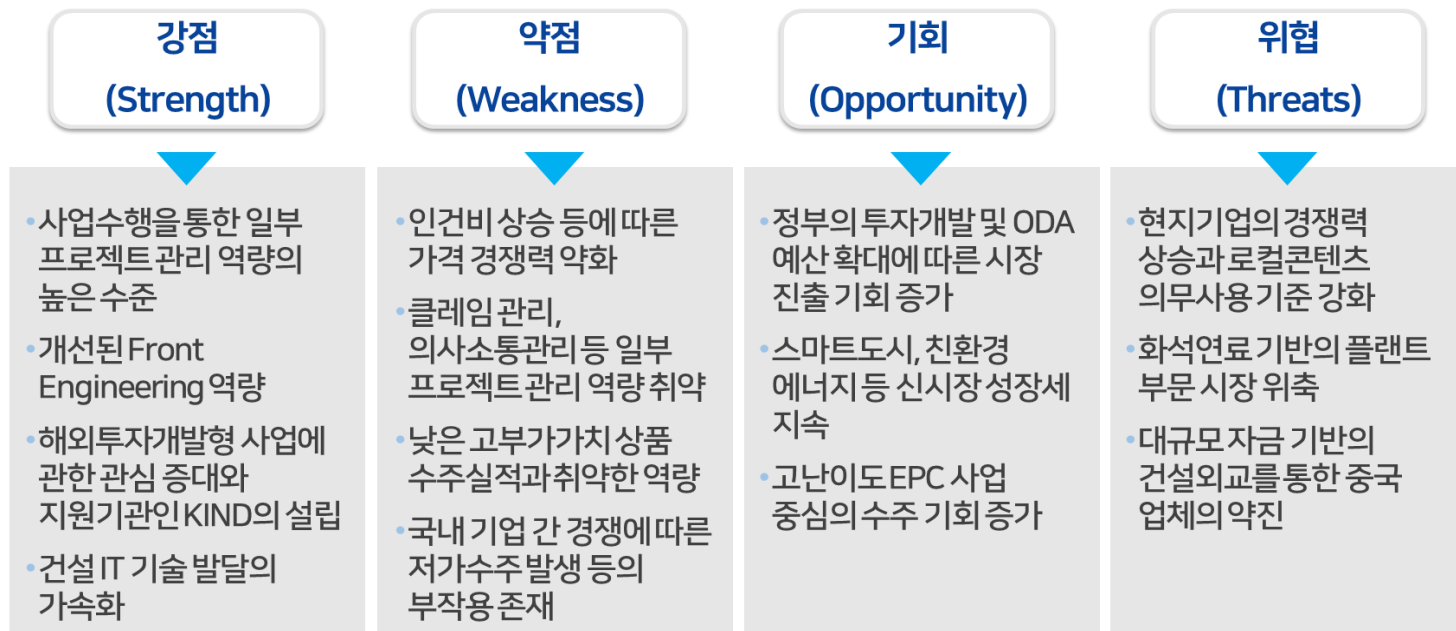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1	중국(65)	21.1	중국(69)	23.7	중국(76)	24.5	중국(74)	25.4	중국(78)	25.6	중국(79)	28.4
2	스페인(11)	12.6	스페인(11)	13.9	스페인(10)	14.2	스페인(11)	14.9	스페인(10)	14.9	스페인(8)	13
3	미국(43)	9.0	프랑스(3)	7.6	프랑스(3)	8.7	프랑스(4)	9.9	프랑스(3)	10.8	프랑스(3)	12.7
4	프랑스(3)	8.9	미국(36)	6.9	미국(36)	6.9	독일(3)	6.6	독일(3)	7.9	미국(41)	6.1
5	한국(11)	7.3	독일(4)	6.3	독일(4)	6.5	미국(35)	5.2	한국(11)	5.1	한국(11)	5.7
6	이태리(14)	5.7	한국(11)	5.3	한국(12)	6.0	한국(12)	5.2	미국(41)	4.9	이태리(13)	5.6
7	터키(46)	5.5	일본(14)	5.3	터키(44)	4.6	터키(44)	4.6	이태리(12)	4.8	터키(42)	5.1
8	일본(13)	5.2	터키(46)	4.8	일본(11)	4.0	영국(3)	4.2	터키(40)	4.4	일본(11)	4.2
9	독일(2)	5.0	영국(3)	4.6	오스트리아(2)	4.0	일본(13)	4.1	일본(11)	3.9	네덜란드(3)	2.3
10	스웨덴(2)	3.2	이태리(11)	3.8	영국(3)	3.9	오스트리아(2)	4.1	네덜란드(3)	1.9	독일(3)	1.6

자료 : ENR 각호

## 약점보완과 기회 포착이 필요한 해외건설

### ● 일부 사업관리 역량 확보와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을 위한 기관 설립 등 지원 강화는 강점

- 클레임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선진 건설기업 대비 낮은 프로젝트 관리 역량
- 고부가가치 상품 영역에서의 낮은 수주 실적 ⇨ 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 반복
- 로컬 콘텐츠 활용 강화, 화석연료 기반의 상품 시장 위축 등으로 Red Ocean化 되어가는 해외건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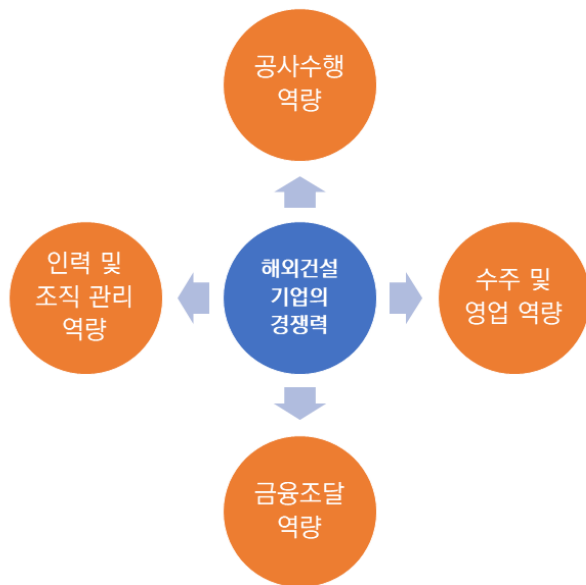


##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수주는 기업만의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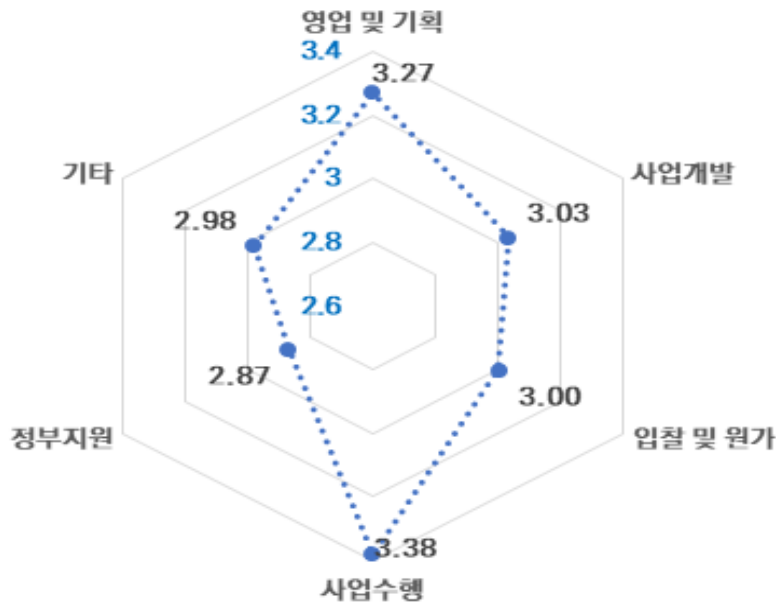
### ● 기업의 경쟁력과 정부의 지원이 동반될 때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제고 효과

- 공사수행, 수주 및 영업, 인력 및 조직관리, 금융조달 역량이 해외건설 기업의 핵심 경쟁력
- 4차 진흥기본계획, 영업과 기획, 사업개발, 입찰 및 원가, 사업수행, 정부지원, 기타(사회공헌, 언어 및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된 경쟁력 진단 평가에서 5점 만점에 3.09점

#### 〈해외건설 기업의 경쟁력 요인〉



#### 〈우리 해외건설 기업의 경쟁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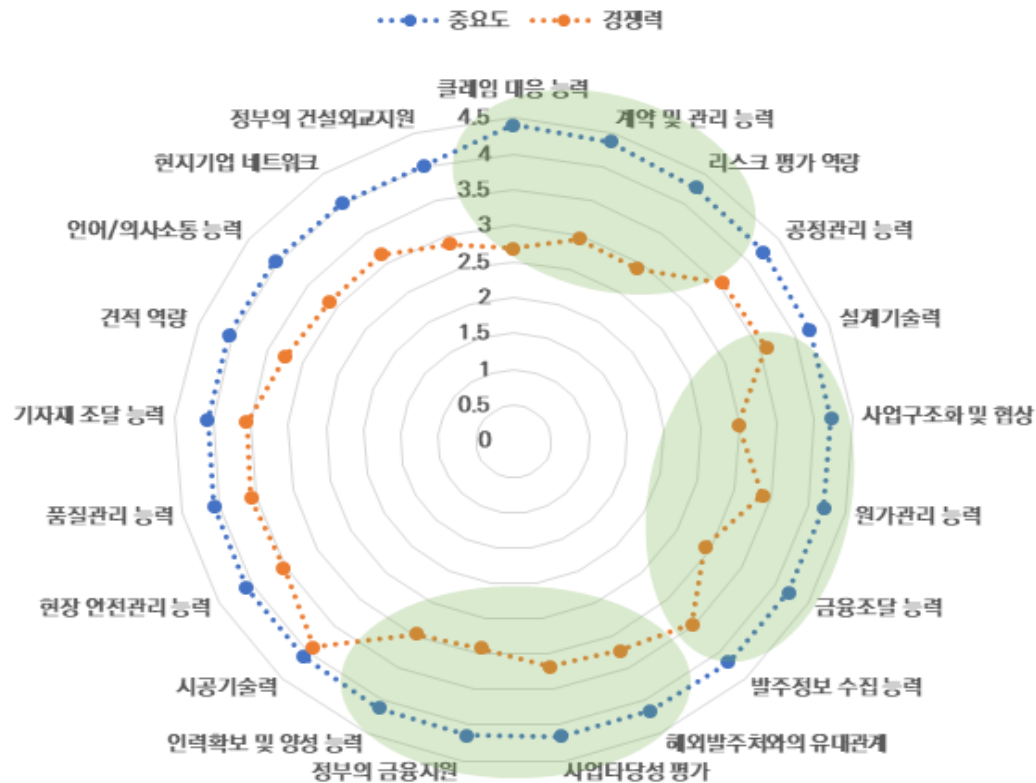
자료 :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 부문별 세부 역량요인의 중요도와 경쟁력 진단

### 6개 부문별 세부 역량요인에 대해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을 진단 ⇨ GAP에 주목

- 직접적인 사업수행과 관련된 역량 요인(시공기술력, 품질관리, 현장 안전관리, 기자재 조달 등) 평가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만큼 경쟁력도 일정 수준 이상
- 반면, 정부지원 부문과 클레임 대응, 계약 및 관리, 금융조달, 설계기술력 등에서는 중요도와 경쟁력 간의 격차 존재
- 해외건설 지원방안은 해당 역량 요인의 중요도와 경쟁력 간의 격차를 축소하는데 집중

### 〈세부 역량요인별 중요도와 경쟁력 수준〉



글로벌 선진기업 대비 평균 사업관리 역량 수준 71%

## ● 세부 사업관리 부문에 따라 선진 건설기업 대비 역량 간 격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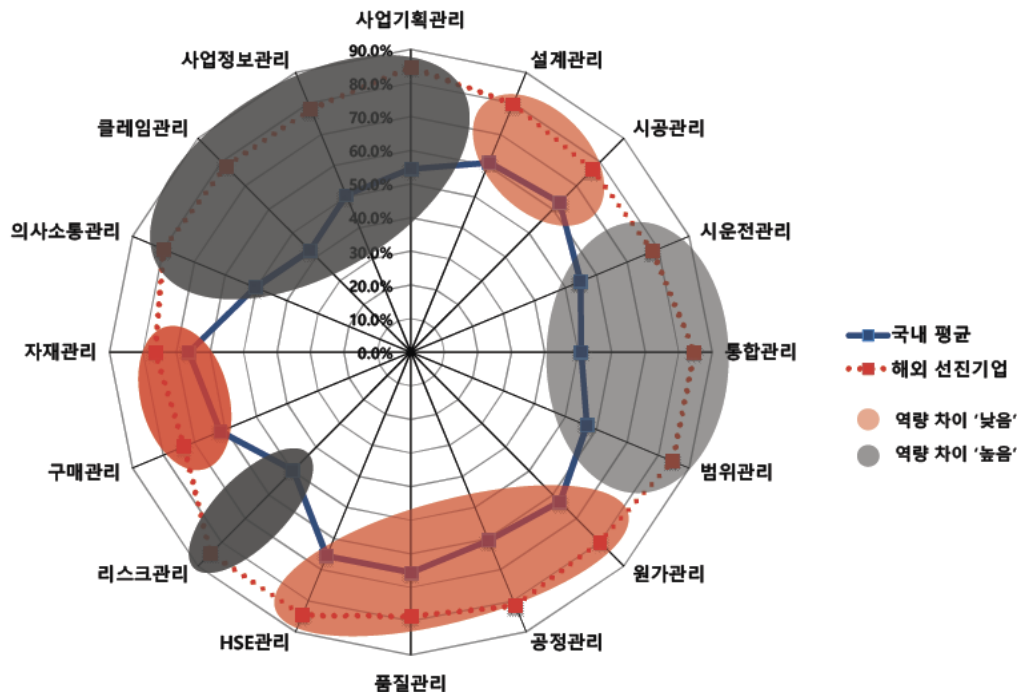
- 역량 차이가 낮은 부문: 설계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구매관리, 품질관리, HSE관리 등
- 역량 차이가 높은 부문: 클레임관리, 통합관리, 사업정보관리, 사업기획관리 등
- 전문가 대상의 설문방식 진단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 역량 제고는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인

부족한 사업관리 역량 ⇨ 수주 경쟁력 저하

기업의 역량제고

정부의 지원강화

## 〈글로벌 선진기업과 국내 건설기업 간 사업관리 역량 비교〉



## 해외건설 시장환경 및 경쟁력 진단과 진출전략

1. Inconsistent Outlooks
2. Evaluation of Our Positions
3. Strategies

## 금융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

- 해외수출 금융지원 강화, ODA 연계 수주 연속성 강화,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Team Korea 기반 해외진출 지원, 부처 간 수주지원 최적화 통합채널 수립 등이 우선 순위 차지
  - 금융지원 세부 방향에서는 ODA 자금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ODA 프로젝트 개발시 민관 동반진출 모색 등 높게 평가
  - 기업 유형별로 정부의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평가 결과 차이 有

## 〈정부의 정책지원(좌)과 금융지원(우) 방향〉

기업유형별상위 5개 해외건설관련 정부의정책지원 방향				
순위	전체 (N=136)	대형건설업체 (N=53)	중소중견 건설업체 (N=34)	설계 및 엔지니어링 (N=49)
1	해외수출 금융지원 강화	해외수출 금융지원 강화	해외수출 금융지원 강화	ODA와 연계된 수주 연속성 강화
2	ODA와 연계된 수주 연속성 강화	Team KOREA 기반 해외진출 지원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3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ODA와 연계된 수주 연속성 강화	ODA와 연계된 수주 연속성 강화	국제기구와의 사업채널 확대
4	Team KOREA 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부처간 수주지원 최적화 및 통합채널 수립	해외수출 금융지원 강화
5	부처간 수주지원 최적화 및 통합채널 수립	전방사업 가치사슬 확대 지원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진출지역/국가 다변화 지원

기업유형별상위 5개 해외건설관련 정부의금융지원 방향				
순위	전체 (N=136)	대형건설업체 (N=53)	중소중견 건설업체 (N=34)	설계 및 엔지니어링 (N=49)
1	ODA 자금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ODA 프로젝트 개발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진출 모색	ODA 자금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ODA 자금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2	ODA 프로젝트 개발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진출 모색	저금리 정책금융 제공	ODA 프로젝트 개발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진출 모색	ODA 프로젝트 개발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진출 모색
3	시장개척사업 자금지원 확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지원국가 및 범위 확대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시장개척사업 자금지원 확대
4	저금리 정책금융 제공	공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저금리 정책금융 제공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5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실효성 개선	시장개척사업 자금지원 확대	시장개척사업 자금지원 확대	다자개발은행 사업협력 네트워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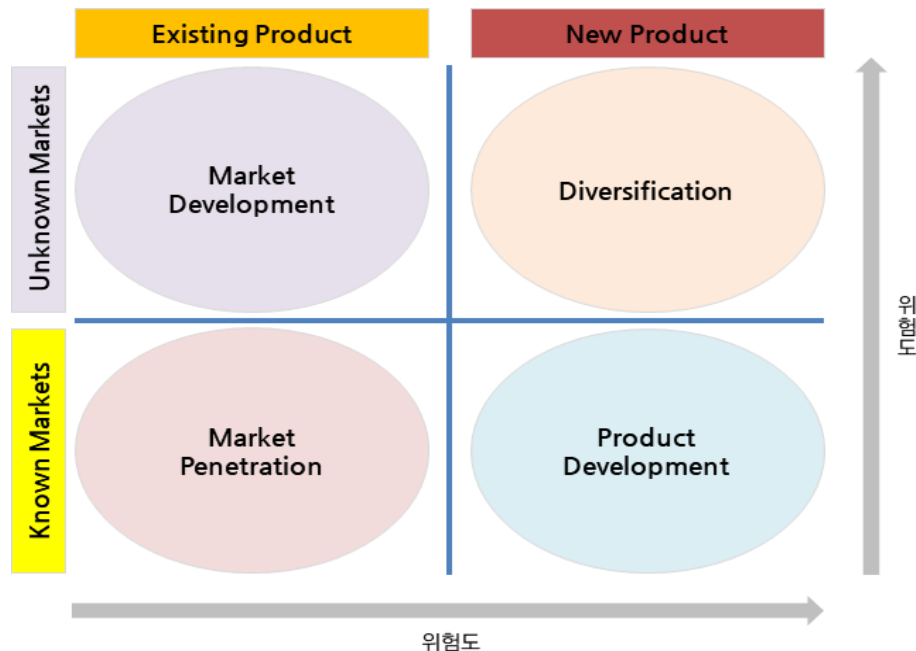
자료 :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키워드는 상품과 시장

### ● 시장과 상품을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4대 전략

- Market Penetration(시장 저변확대): 기존 주력상품의 도급형 사업으로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도화 전략 ⇨ 기술 및 가격 경쟁력과 현지화 역량 보유 필요
- Product Development(상품확대): 주력시장(Known Markets)에서 새로운 상품(New Product)으로 수주 저변 확대 전략 ⇨ 진출 시장에서 경험과 현지화 역량, 신상품 수요 분석 역량 등 필요
- Market Development(시장창출): 기존 주력상품으로 비주력 시장(Unknown Markets)으로 진출해 수주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 기술 및 가격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 필요
- Diversification(다각화): 새로운 상품으로 비주력 시장을 개척하는 다각화 전략 ⇨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비롯해 금융조달 역량 등 필요

###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구성요인과 체계〉



자료 : Principles of Marketing 수정

Risk Level

Market Penetration



Product Development



Market Development



Diversification

상품과 시장별 맞춤형 지원방안의 세분화 필요

- 시장과 상품 기반의 진출전략에 따라 활용 가능한 수주 지원방안을 세분화해 적용
  - 기존시장(중동, 아시아)에서 주력상품으로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 및 보험 지원, 세제 혜택 등과 직접 체감형 지원 필요
  - 진출실적이 낮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에 주력 상품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무상원조, G2G 확대, 시장개척지원, 정책펀드 등의 활용 필요
  - 수주 실적을 보유한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상품(PM 등)으로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 Eng 진출 지원 등과 같은 지원 방안 필요
  - 일부 아시아 시장과 중남미 및 선진국 시장으로 새로운 상품(PPP)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활용, Team Korea 등의 복합적인 지원 방안 필요

〈진출전략별 세부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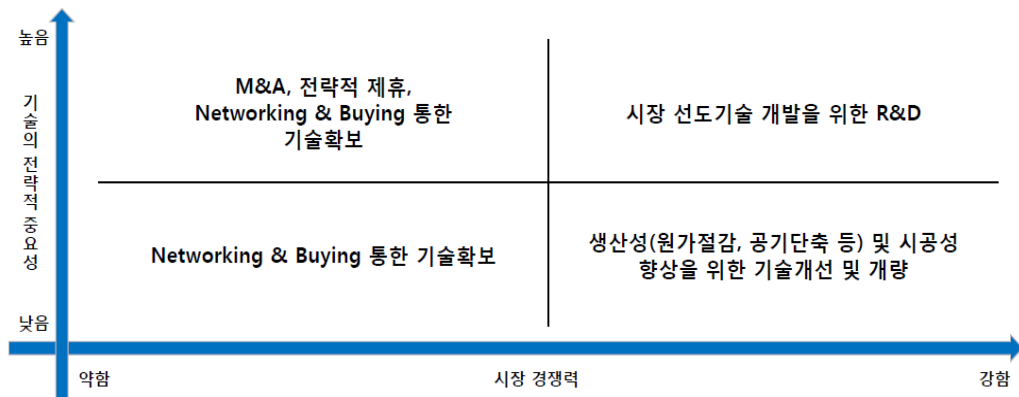
구 분	Market(시장)		Product(상품)	
	Penetration (Red Ocean)	Development	Development	Diversification (Blue Ocean)
중 동	▶보증&보험 지원 ▶세제 혜택			
아 시 아		▶유·무상원조확대 ▶G2G 협력 ▶시장개척지원 ▶정책펀드 활용	▶PM분야진출확대 ▶유망Eng진출지원	▶PPP+공적자금
아프리카				
중 남 미				▶Team Korea ▶PPP
선 진 국				

## Team Korea 주도의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체계

### ● Team Korea 방식의 해외건설 진출 구조

-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금융조달, 건설외교,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집중
- 투자개발형사업 역량과 도급사업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민간-공공-정부 협력 진출 체계
- 기술개발(확보)을 위한 기업의 기술전략 체계의 세분화 필요

### 〈기업의 기술확보 전략〉



### 〈 2016~2NR 국가별 점유율 및 순위 추이 〉

#### Team Korea 주도 해외건설 진출







Thank You!

**End of Document**

손 태 홍, Ph.D.  
thsohn@cerik.re.kr